

해외 최신 의약뉴스

편집인 남궁형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재)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미 위장관 협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 위식도 역류 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의 진단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키워드

위식도 역류 질환,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가이드라인, PPI, Clostridium difficile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Reuters Health Information, Mar 13, 2013]

지난 2월 15일, 미 위장관 협회는 위식도 역류 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의 진단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로렌 B. 거슨 박사는 여섯 가지 새로운 영역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체중 감량과 침대 머리 높이기(야행성 위 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위식도 역류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생활습관이지만, 역류를 악화시킨다고 의심되는 음식물(초콜릿, 카페인, 술, 맵고 신 음식)을 피하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권장되지 않는다.
2. *H. pylori*에 감염된 환자에게 장기간 PPI(proton pump inhibitor)를 투여시 위축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H. pylori* 감염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와 치료는 추천되지 않는다.
3.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원위 식도의 일상적인 생검은 추천하지 않지만, 연하곤란을 동반한 환자나 치료에 불응성인 환자에서 호산구성 식도염(eosinophilic esophagitis; EoE)이 의심 되는 경우에는 원위 및 중간 식도의 생검을 시행해야 한다.
4. 장기간 PPI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으나, 영당이 골절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고, Clopidogrel과 병용 투여시 심혈관계 위험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5. 기침, 후두염, 천식 등의 식도 외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잘못 진단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는 역류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다른 원인이 있는지 평가한 후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만 PPI를 투여해야 한다.
6. 내시경 치료는 위식도 역류에 대한 치료로 권장되지는 않으나 위식도 역류를 가진 비만 환자에서는 위장관 우회술을 고려해야 한다.

가이드 라인에는 위식도 역류의 진단과 관리, 수술 가능성, 식도 외 증상 및 합병증, PPI의 위험성 및 PPI에 불응성인 위식도 역류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거슨 박사 연구진은 가이드라인과 그 선택 사유에 대해 2월 19일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온라인판에 발표하고, "미국 내 비만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위식도 역류와 관련된 합병증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PPI는 위식도 역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사용뿐만 아니라 필요 시 사용, 간헐적 사용 시에도 가장 저용량을 투여해야 하며, 위식도 역류 관련 합병증 환자에서도 PPI의 유지요법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PPI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환자에서는 상부 위내시경과 산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불응성 식도 외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는 호흡기, 이비인후과, 알러지 전문의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형적인 가슴 통증 증상 뿐 아니라, PPI 치료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환자는 수술 치료에 좋은 결과를 보이거나, PPI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식도 외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 후 반응률이 낮아진다." 라고 언급하였다.



원문링크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780737>